

보험

산업이슈

2017. 11. 23

보험사 약관대출 증가 관련 코멘트

News

보험권 약관대출 크게 증가: 정부가 가계 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험권 약관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생보사 25곳의 보험약관대출 규모는 3년새 7.29% 증가했다고 한다. 손보사들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데, 상위 4개 손보사의 9월말 약관대출잔액은 9.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86%/9,660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보험신문 보도 이후 인터넷언론사들 보도)

Comment

약관대출 증가는 가계부채 문제와는 별개의 이슈: 보험약관대출금은 보험가입자가 해약하면 찾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과 유사하며 다른 대출과 매우 차별적이다. 보험계약자 관점에서, 여타 신용대출 대비 고금리라는 부담은 있지만 절차가 간단하고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타금융사에서 조회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의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적정마진이 확보되며 IFRS17 및 K-ICS 적용 시 자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과거 어느때보다 그 유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한 비율을 공제해 대출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무작정 대출자산을 늘이기는 어렵다. 대형생보사들의 경우 보험료적립금 대비 약관대출이 10% 수준인데,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생보사나 손보사들의 경우 마케팅을 통해 향후 약관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도표 1] 참조)

Action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약관대출의 중요성 더욱 높아질 것: 8월말 기준 생보사 약관대출은 43조원으로 직전 1년간 4.17% 증가했으며, 9월말 기준 9.9조원 규모인 손보 상위 4사의 약관대출도 직전 1년간 10.86%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보험사 약관대출의 증가율은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약관대출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약관대출을 거시적 가계부채 문제와 연관지를 이유는 없다. 저금리 심화와 새로운 자본규제 도입으로 약관대출이 갖는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므로 보험사들이 약관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지만, 그 특성상 대형사들은 자산이 증가하는 것보다 빠르게 약관대출을 증가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아직도 보험료적립금 대비 약관대출 비율이 낮은 회사들의 경우 약관대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추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도표 1. 주요 보험사 보험료적립금 대비 약관대출 비율 (17.6월말 기준)

생보사명	약관대출/보험료적립금	손보사명	약관대출/보험료적립금
삼성	9.4%	삼성	7.4%
교보	9.4%	DB손보	8.4%
한화	8.2%	현대	7.7%
ING	9.9%	KB	9.4%
동양	6.3%	메리츠	4.5%
미래	5.3%	한화	6.8%

자료: 금감원, DB금융투자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거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1년간 투자의견 비율 (2017-09-30 기준) - 매수(66.0%) 중립(34.0%) 매도(0.0%)

■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